

내 모습 그대로

원작자 | 빈두 굽타, 카낙 샤시

글 | 김은파

원작 글 | 빈두 굽타 (Bindu Gupta)

원작 그림 | 카낙 샤시 (Kanak Shashi)

글 | 김은파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해 질 무렵 양 떼 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양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마티만 빼고요. 왜냐고요?
마티는 몸이 너무 커서 울타리 문을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티는 일주일 넘게 울타리
밖에서 자야 했어요. 오늘도
울타리 안에서 자기는 힘들 것
같았지요.

‘저 짜증나는 문! 이건
불공평해.’ 하고 마티는
생각했어요.



요가를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요가를 해 봐! 요가를 하면 날씬해질 거야. 그러면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다음 날 마티는 요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하지만 마티는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굵어요.





이번에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달리기를 해 봐! 그러면 날씬해질 거고,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티는 매일 달리기를
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마티는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수영을 좋아하는 양이 말했어요.
“수영을 해 봐! 그러면 날씬해질 거고, 문을 통과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티는 수영을
시작했어요. 매일 수영을
했지만 마티는 여전히 문을
통과하기에 너무 컸어요.



이번에는 마티의 친구가
말했어요.

“자전거를 타 봐. 매일
자전거를 타도 네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면 내가 이
모자를 먹을게!”



마티는 화가 났어요.

“이제 지켜워! 나는 그저
집에 들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그래서 마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며칠 후 마티는 농장으로
돌아왔어요. 마티의 몸은
그대로였지만, 대신에



도구가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티는 폭신한 침대 위에서 눈을 떴어요.
양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넌 여전히 몸이 크잖아! 어떻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냥 문을 약간 넓혔어.”
마티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나는 문을 통과할 수
있어. 내 모습 그대로 말이야!”

“내 모습 그대로” is a derivative of “Just the Way I Am” by Bindu Gupta and Kanak Shashi, used under CC BY 4.0.
“내 모습 그대로”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